

안방극장 휘어잡는 직진녀 매력

Z세대와 소통은 소문자로

앨범명·영어 곡명 소문자로만 조합
로드리고·그란데 등 팝 디바서 유행
친근함의 표현...로제 등 K팝서도 등장



‘견우와 선녀’ 조이현



‘미지의 서울’ 박보영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 서현

“너랑 하고 싶은 거? 사랑밖에 없다고.”
tvN 새 드라마 ‘견우와 선녀’의 여자 주인공 성아(조이현 분)는 학교 복도에서 키가 족히 20cm는 더 큰 남자 주인공 견우(추영우)를 벽으로 몰아세우고, 모두가 듣는 데서 당당하게 속마음을 고백한다.

시종일관 까칠한 태도로 성아를 밀어내던 ‘철벽남’ 견우는 당황해서 쏘스러운 듯 눈을 피하다가 한 손으로 입을 가리고, 얼빠진 표정으로 성아를 쳐다본다.

로맨스 드라마에서 클리셰(상투적인 표현)처럼 등장하는 박력 넘치는 ‘벽치기’인데, 익숙한 남녀주인공의 역할이 뒤바뀌었다. 이처럼 요즘 안방극장에서는 먼저 적극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사랑을 쟁취해내는 여자 주인공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23일 처음 방송되는 tvN 월화드라마 ‘견우와 선녀’의 여자 주인공 성아는 낮에는 고교생이고, 밤에는 정체를 숨기고 무당으로 일하는 ‘MZ 무당’이다.

남자를 볼 때 오직 외모만 따지는 성아는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이상형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미모의 남자 견우를 손님이자 같은 반 친구로 만난다. 그리고 곧 죽을 운명인 첫사랑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인간 부처’가 되기로 한다. 물귀신, 불귀신 다 막고, 액운도 막아주기 위해 견우의 곁에 찰싹 붙어 그를 졸졸 따라다닌다.

현재 방영 중인 tvN 드라마 ‘미지의 서울’의 여자 주인공 유미래(박보영)도 남자 주인공 이호수(박진영)보다 적극적인 편이다.

주체적인 여성상 달라진 가치관 로맨스 드라마 공식에도 변화

먼저 다가가 말 걸고 만남 유도
상대가 거절해도 호감 표현
여주인공 적극적인 사랑 쟁취

‘견우와 선녀’·‘미지의 서울’ 등 방송 거듭될수록 시청률 상승

고등학교 시절에도 미래가 전학생인 호수에 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말을 걸었고, 성인이 돼 재회한 후에도 먼저 데이트할 기회를 만든 사람은 미래였다.

KBS 2TV에서 방송 중인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 역시 제목으로 유추할 수 있듯이 당돌하고 거침없는 여자 주인공을 내세웠다.

동명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 드라마는 평범한 한 여대생이 로맨스 소설 속 세계에 들어가고, 그의 영혼이 소설 속 단역인 ‘차선책’ (서현)의 몸에 깃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차선책은 소설의 남자 주인공 이변(옥택연)을 만나자 어차피 소설 속인데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며 술집에 그에게 먼저 다가가 입을 맞추고, 그렇게 둘은 그렇게 그날 밤을 함께 보내게 된다.

지난달 종영한 tvN 드라마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생활’도 ‘플러팅’ (호감 표시) 장인 오이영 (고윤정)과 구도원 (정준원)의 로맨스로 큰 화제를 모았다.

드라마의 주인공인 산부인과 1년 차 레지던트 오이영은 매사에 시큰둥한 편이지만, 호감 있는 남자 앞에서 눈빛부터 달라진다.

철벽을 치는 상대방 앞에서도 불도저처럼 돌직구로 데이트 신청을 하고, 먼저 덥석 손을 잡아버리는가 하면, 끊임없이 주변을 맴돌며 담백하게, 때로는 능글맞게 호감을 표현하는 인물이다.

첫 회 시청률 3.7%로 출발한 이 드라마는 오이영과 그의 사돈인 산부인과 레지던트 4년 차 구도원 (정준원)의 로맨스가 시청자들의 호응을 얻으며 시청률을 견인했다. 최종회에서 자체 최고 시청률 8.1%를 기록하며 종영했다.

수동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았던 로맨스 드라마 속 여성 캐릭터들이 이처럼 능동적으로, 남자 주인공보다도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화하게 된 데는 달라진 가치관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요즘 시청자들 사이에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여성상이 주목받다 보니, 여자 주인공들이 사랑에서도 보다 주도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자 주인공이 일방적으로 다가가는 로맨스는 과거와 달리 이제는 불편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성 주도적인 로맨스가 오히려 더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이야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룹 ‘아일릿’

‘리틀 몬스터’ (little monster), ‘젤리어스’ (jellyous), ‘옴스!’ (oops!).“

걸그룹 아일릿이 지난 16일 발표한 세 번째 미니앨범 ‘밤’ (bomb)을 살펴보면 한 가지 특징이 눈에 띈다. 앨범명을 비롯해 영어 곡명은 소문자로만 이뤄져 있다는 것이다.

통상 제목 첫 글자는 대문자로 하거나, 특별한 의미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 모두 대문자로 쓰는 것과는 다른 표기법을 택한 셈이다.

소속사 빌리프랩 관계자는 이에 대해 22일 “다소 강하게 느껴질 수 있는 제목들에 소녀들의 감성을 담아 다이어리를 꾸미듯이 표현하기 위해 소문자를 활용했다”며 “앨범명과 트랙리스트 전곡을 소문자로 통일하면서 디자인적으로도 감성이 배가 됐다”고 설명했다.

가요계에서 아일릿의 사례처럼 앨범 전곡을 소문자로 표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블랙핑크의 로제가 작년 12월 발표한 솔로

1집 ‘로지’ (rosie)도 마찬가지다. 앨범명과 타이틀곡 ‘독식 틸 디 엔드’ (toxic till the end)를 비롯해 ‘넘버 원 걸’ (number one girl), ‘투 이어스’ (two years), ‘게임보이’ (gameboy) 등 ‘아파트’ (APT.)를 제외한 전곡이 소문자로 돼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소문자 제목에는 자신의 내밀한 이야기를 청자에게 친근하게 전하고자 하는 Z세대 스타들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분석한다.

임희운 대중음악평론가는 “소문자 제목은 마치 일기장을 훑어보거나 혹은 어떤 문장의 일부를 떼어내 보여주는 느낌을 줄 수 있다”며 “노래로 조심스럽게 속삭이거나 감정에 충실한 듯한 시각적 효과도 낸다”고 설명했다.

가수가 카리스마 넘치는 스타로 군림하지 않고 팬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듯 친근하게 소통하는 느낌을 줘 팬에게 더 큰 만족감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연합뉴스

등골 오싹~ 무더위 날려줄 호러 영화

충간소음 소재 ‘84제곱미터’·‘노이즈’...괴담 유튜브 ‘괴기열차’

예년보다 더한 무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되는 올여름, 관객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어 줄 한국 공포 영화가 잇따라 나온다.

22일 영화계에 따르면 김수진 감독의 ‘노이즈’는 오는 25일 극장에 걸린다. 충간소음 문제로 시끄러운 아파트 단지에서 갑자기 사라진 여동생을 찾아 나선 언니 주영 (이선빈 분)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이다.

주영은 보청기를 착용해야 또렷하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청각장애인이다. 이 설정 덕에 사운드가 주는 공포감은 배가된다.

다음 달 18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되는 영화 ‘84제곱미터’도 ‘노이즈’와 비슷한 설정을 내세웠다. 이른바 ‘영광’로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우성 (강하늘)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충간소음에 시달리며 겪게 되는 일을 그렸다.

괴담을 소재로 한 탁세웅 감독의 ‘괴기열차’는 다음 달 9일 개봉한다. 조희 수에 목매는 유튜브 다경 (주현영)이 의문의 실종이 연이어 발생하는 ‘광림역’의 비밀을 파헤치는 과정을 따라가는 영화다.

/연합뉴스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광주문화신탁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